

# 김소점씨의 평생 소원은 '반다비 체육관' 건립

### 어둠서 한 줌 빛 봉사 활동 21년째 이어진 사랑의 꿈...

김소점 경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의 봉사활동이 남다르다.  
73년생인 김 씨는 고교시절 유도 국가대표를 지냈고, 계명대 체육학과를 졸업해 한때 광주시청 실업팀에서 활동하기도 했다.  
결혼 후 아들을 낳았지만 근육병환자이다. 현재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장애인이다.  
근육병은 UN이 정한 5대 중증 진행성 희귀난치

성 질환이다.  
현재로서는 뚜렷한 치료법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동과 보행은 물론 식사나 배변 등 신변처리까지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중증장애 질환이다.  
그레서인지 김씨는 장애우 관련 봉사를 2003년부터 시작했다.  
2014년까지 경산시장장애인부모회에 임원 및 회장으로서 장애인 활동으로 경산시 특수학교 설립 및 장애인들 인권을 위해 활동했다.  
그는 2007년부터 18년 동안 경북장애인 골프협회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2022년부터 행복수레봉사단을 발족해 지역에 활

동을 하던 중 민선 8기 인수위원회 참석하기도 했다.  
그는 인수위원회에서 받은 참석수당을 280만원 전액을 장애인복지시설에 전달해 달려며 경산시 청에 기탁하기도 했다.  
김소점 경산시 장애인 체육회 사무국장은 "현재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관이 없다. 국가정책으로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건립할 수 있는 길이 있다. 현재 장애인들이 운동을 하려해도 운동할 공간이 없다. 소망이라면 장애인들이 마음놓고 운동할 수 있는 '반다비' 체육관 건립에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  
반다비 체육관은 장애인 및 비장애인이 생활권 내에서 함께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

공스포츠 공간이다.  
반다비체육관 건립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다.  
정부는 장애인들의 생활체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이 운동하기 좋은 사회통합형 체육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지원을 국정과제로 선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27년까지 총 150개소 건립을 지원한다.  
전국적으로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1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말까지 추가로 10곳 이상이 문을 연다.  
한편 김씨는 지난달 3일 경산시 장애인 체육회 초대 사무국장으로 취임했다. 조미경 기자



사진은 김소점씨가 근육병을 앓고 있는 아들과 한때를 보내고 있다.

2024

대구광역시  
대량일보  
영사나눔  
골프포큰잔치

D-20

MY UNIVERSE GYEONGSAN

대학도시를 넘어 창업도시로! 'ICT허브도시 경산'

꽃피는 시민정리 행복경산

# 김재원, 최고회의 전략 총괄사령부 만들어 戰士 육성...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 민주당 “탄핵에 중독된 사람들” 맹폭 보수 최강 공격수 자임... 저는 싸울때 최전선서 싸웠고 늘 가열차게 싸웠다 그래서 싸우면 이겼다 흠어진 ‘전열’ 다시 정비하고 싸우겠다 의지 다져...

국민의힘 김재원 전 최고위원 다시한번 정치 부활을 꿈꾼다.

그는 7·23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 출사표를 던졌다.

애초 국민의힘은 과거 5·18 특별 발인 논란 등으로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은 전역 때문에 김전 최고위원을 자격심사에서 탈락시켰다.

김전 최고위원은 불복이의 신청을 냈다.

결국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부당하다는 김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전 최고위원은 예비경선 없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다.

국민의힘은 지난 2일 오전부터 서울 강서구 ASSA 아트홀에서 제4차 전당대회 체인지 5분 비전 발표회를 열었다.

김 후보는 당원들에게 5분 비전을 발표했다.

이날 최고위원 후보자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자 10명이 연설문을 낭독했다.

최고위원 후보에 컷오프됐다거나 이의신청을 해 다시 돌아온 김 최고위원 후보는 “보수 최강의 공격수 수를 자임하는 저는 싸울때 항상 최전선에서 싸웠고 가열차게 싸웠다. 그래서 싸우면 항상 이겼다”며 “흠어진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일어서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혹하게 패배한 건 처음 있는 일 아닌가”라며 “그런데 우리가 더 힘든 상황이 된 것은 우리를 패퇴시킨 상대방이 범죄자로 지목받고 재판을 4개씩 받는 이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 곧 교도소에 갈 조국 이이끄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김재원이 나서서 흐트러진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일어서서 싸우겠다. 최고회의를 전략 총괄사령부로 만들고 당 전사를 육성하고 그 전사가 앞장서서 싸우게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우리당의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김 최고위원 후보는 5분 비전을 발표에 이어 3일 당대표 후보로 출마한 나경원 의원과 대구 서문시장에서 전략적 비전 협력관계라고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나 의원이 국회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김 후보 혼자 전략 비전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영남 당원들의 뜻을 나의원과 함께하고 또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협력하는 비전을 공유하는 전략적 협력관계로 같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의원과 정치적으로 20여년간 함께 같이 했다”며 “조선 의원 이후로 지금까지 같이 했고 같이 주장하는 바가 상당히 일치해서 서로 도와가



면서 앞으로도 당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는 ‘어대한’(어차피 당대표는 한동훈)에 대해 “영남 당원들과 지지자들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상당히 지지의 의사를 표현하는 분들이 강하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대통령과의 관계 또는 당권을 잡았을 때 혼란이 올 것, 이런 데 대한의 구심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민심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며 “한 전 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나경원-원희룡 두 후보의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결선투표에 가면 제도적으로 단일화를 해 준다. 다만 지지자들이 한쪽으로 몰릴지, 몰리지 않을지는 두 번째 문제”라며 “(결선투표까지) 갈 가능성은 많다고 본다”고 예상했다.

김 후보는 본인의 출마를 야당에서 지지하는 것과 관련된 연설을 높였다.

그는 “민주당은 범죄자 천국인데 무슨 정신으로 날비나하냐”라고 맹폭을 가했다.

김 후보는 3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교도소 가서 중형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아주 큰 분이 혼자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 그런 당에서 무슨 정신이 있어 비난을 하는지”라며 “그당은 범죄자의 천국 아니냐”고 되받아쳤다.

김 후보는 “야당에서 ‘징계를 받은 사람을 당 지도부에 참여시키려고 하는냐’ 이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 민주당은 징계 문제가 아니고 교도소에도 갔

다오고 형수에게 쌍욕을 하고 오만 범죄를 저질러서 재판을 내 군데나 받고 있고 또 곧 교도소 가서 중형을 받아야 될 가능성이 아주 큰 분이 혼자 전 당대표(출마해) 당대표가 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당에서 무슨 정신이 있어서 여당의 최고위원 후보에 대해서 그렇게 비난을 하는지 스스로 좀 돌아봐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당은 범죄자의 천국 아니냐”라며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잖아”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에 독소를 날렸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을 불법 대납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 탄핵소추안 발의를 “탄핵에 중독된 사람들”이라고 비난했다.

김 후보는 “대선에서 실패한 지금의 처지를 탄핵이라는 것으로 삼라적 위안이라도 삼는 상황이 아닌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검사들을 겨냥한 ‘양갈음’이라고 했다.

김 후보는 민주당이 이번 발의를 대통령 탄핵 시도를 위한 대입들로 여기고 ‘탄핵은 아무나 계속할 수 있다’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으려는 것으로 추측했다.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민주당이 알면서도 추후 대통령 탄핵 시도 시 역풍을 줄이려 선수를 친다는 주장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일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차장검사, 김경철 서울북부지검차장검사,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엄희준

부산지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강검사에 관해 “신학립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우 대주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불법 압수수색을 하고 피의자 실을 공표했다”고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박검사에 대해서는 “이전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 의혹 등이 있다”면서, 엄 검사를 놓고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 과정에서 위증 교사의 의혹 등이 있다”고 각각 탄핵 사유를 설명했다.

엄 강검사는 이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 수사를, 박 검사는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각각 맡은 바 있다.

김검사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의 조카장시호씨와 뒷거래했다는 의혹과 ‘김건희 여사 바자회’ 수사 의혹 등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같은 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탄핵안에 대한 합법·적절성 등을 조사해 다시 본회의의 안건으로 회부할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자회견에서 “해외 토크쇼로 나올 사안”이라며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거세게 반발했다.

차라리 자신을 탄핵하라며 맞선 이 총장은 “박상용 검사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이 주된 탄핵 사유인데 본인과 변호인 주장 외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한전 총리 유죄 판결 확정 은 이미 9년이 지났다”는 말로 엄 지청장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국정농단을 계기로 집권한 정당에서 사건이 조작됐다고 말하는 것은 자기당착”이라며 김 차장검사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며 반박했고, 강검사에 대해서도 “수사한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법원에서 관련자 2명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위법성이 없다고 내세웠다.

퇴직 검사들의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3일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는 파렴치한 검찰말살이자 ‘검사검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김 후보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를 만나지 않은 흥준표 대구시장에게도 한 마디 했다.

그는 흥 시장이 한 당대표 후보를 안만나는 이유가 자신의 차기 대선행을 기로하는 경쟁자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김 후보는 “흥 시장은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폭로하는 분이다. (한 후보가) 직접 하지 않고 여러 사람을 동원해서 자꾸 전화해서 만나려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고 판단했다.

흥 시장이 한 후보 측의 두 차례 면담 요청을 모두 거절했던 것에 대한 해석이다.

앞서 전날 흥 시장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회동한 자리에서 “여러 사람 시켜서 전화 왔다. 와도 안 만난다. 만날 이유가 없다”며 한 후보 측면담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흥 시장은)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2위를 했는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다음에 내 차례인데 갑자기 앞에, 자신이 봤을 때 이란에 가 있으니까 얼마나 밟겠는가”라며 “흥준표 시장 최대 적수가 한동훈 전 위원장이기에 한동훈이 당선되지 않게 하는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후보가 만나지 하려던 것은”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사실 대구-경북 영남 지방에서 한 후보가 상당한 지지세를 형성하는 바람에 흥준표 시장 지지율이 하락했다. 한동훈 다음도 아니고 흥 시장 앞에 오세훈 시장도 들어가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있다”며 일침을 날렸다.

이어 “흥준표 시장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내가 1등이 되어야 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주지들을 있게 만든 건 한동훈이라고 생각하기까지 지금 뿔난 것”이라고 해석했다. 흥 시장이 연일 한 후보를 비판하고 만남 요청도 거절하는 이유는 2027년 실시될 예정인 대선을 위해 견제한다는 뜻이다.

자신이 친윤(친 윤석열)인지 친한(친 한동훈)인지에 대해선 “한동훈 전 위원장은 만나보지도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까이 수가 없다”고 선 그었다.

김 후보는 또 “저는 우리 당에 입당을 하지도 않으려고 버티던,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정치권에 뛰어들어 윤석열 후보를 직접 입당시킨 사람이다”라며 “그 이후에 대통령이 될 때까지 제 나름대로 헌신적으로 노력했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과는 뜻을 같이하고, 대통령도 저를 굉장히 신뢰한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용 기자

최고가 이야기하는

# 최고의 신문을 만들겠습니다

바라만 봐도 부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라만 봐도 탐나는 신문이 있습니다  
깜깜한 세상 ‘새벽’을 여는 ‘첫’ 신문

대구광역시보는 독자의 마음까지 생각합니다.

광고·구독문의 053-253-0000

# 심상휴, 청송군 경제 활성화... 모두 행복한 청송 건설

후반기의회 지휘봉 잡은 심상휴 청송군의회 의장  
군민 삶·질 향상 시키는 다양한 '조례' 직접 발의  
'지역 사회' 다양한 문제 해결... '청송군의회' 앞장

청송군의회 하반기 심상휴 군의원이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일하며 섬기는 의회를 만든다. 청송군의회는 지난 1일 제273회 임시회를 열고 제9대 하반기 의장단 선거를 치렀다. 선거에서 재선 심상휴 군의원(66·국민의힘)이 의장에 당선됐다. 의장단 선거에 재직의원 7명이 참여해 6표를 얻었다.

제8대 하반기 부의장을 지낸 심 의장은 31년간 한국외식업중앙회 청송군지부 사무국장을 역임, 지역 상가와 히로에타를 함께 했다.

윤 부의장은 33년간 청송군청에서 공직을 보낸 뒤 2022년 청송군의회에 입문했다.

심상휴 신임 의장은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동료 의원들과 협력해 청송군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무엇보다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며 올바른 지방자치체를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심 의장과의 일문일답

###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우선 동료 의원님들과 성원해주신 청송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 드린다.

제9대 청송군의회 하반기 의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모두가 행복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헌신하겠다.

### -전반기 의정활동 돌아보면?

△전반기 의정활동을 되돌아보면 전반적으로 큰 과오없이 수행됐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자치와 청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관태준 전반기 의장과 황진수 부의장께서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 전한다.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를 듣고 군정에 전달했지만 군민들의 기대에 충분히 답하지 못한 부분도 일부 있다.

이러한 아쉬움을 발판 삼아 하반기에는 더욱 군민들께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펼쳐겠다.

읍면 방문을 통한 사업장 점검을 더욱 활성화 하겠다.

지역 주요 사업의 추진상황을 더욱 면밀히 점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 효과가 높아지도록



록 매진한다.

관계기관 간담회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 타 시군 의회나 기관과의 교류를 통해 지역정책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나가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 -후반기 의정 활동 계획은?

△후반기 의정활동에서 가장 중점을 둘 부분은 청송군의회가 군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주민조례발안제도를 활성화한다. 군민들의 직접적인 참여를 확대하겠다.

아직은 이 제도가 익숙지 않은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주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겠다.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 자신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둘째, 의원발의조례를 적극 추진한다. 의원들이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직접 발의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 복지 향상을 위한 조례를 중점적으로 다루, 군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들을 신속하게 마련한다.

셋째, 결산검사의 실효성을 재고한다. 군 재정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겠다.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겠다.

### -후반기 청송군의회 과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송군의 경제 활성화다. 의회는 청송군의 경제 발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의원 연구단체인 청년정책활성화연구회에서 청송의 인구유입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청년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게 이유다.

관광산업은 청송군 경제의 커다란 축이다. 연구단체인 세계지질공원연구회를 통해 청송의 관광자원을 발전시킬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전문가 자문, 현장 점검, 토론회 등 활발한 연구 활동을 수행, 청송군 발전에 보탬이 되는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보인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사과의 품질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청송사과연구단지를 통해 꾸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청송사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동남아시아 개척과 같은 사과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청송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

의회와 집행부는 새로운 군정에 대한 책임의 공유자이자 성장의 동반자다.

각자 주어진 역할은 다르지만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큰 수레의 두 바퀴이다.

후반기에는 집행기관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한다.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 모든 군정이 군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의 관계이자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서, 서로 균형을 이루며 오직 '청송군과 군민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쉽지가 고민하고 연구하며 노력하겠다.

정책을 제안하고 개선 요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의원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동료 의원들 간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겠다.

행정사무감사의 내실화를 통해 군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한다.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철저히 검토, 군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지역 상권의 침체를 해결하는데 앞장선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의회 간의 연대를 강화한다.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로 중앙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지역 침체 해결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군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항상 노력하고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

함께하는 청송군의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NO!  
술잔을 비우셨다면, 운전석도 비워주세요.

국민 전석민님께서 제한한 슬로건입니다.

강한 신문 대구광역시일보 '독자의 가슴'까지 생각합니다.

창간 1996년 7월11일 등록번호 대구가 00016(일간) 누리집 : www.dgy.co.kr 전자우편 : dgynews@daum.net

발행인 김 영 숙 | 편집인 김 성 용 | 부사장 조 여 은 | 편집국장 김 현 석

대구시 중구 태평로 286 (2층) 대표전화 053-253-0000 FAX 053-253-0041 광고접수 053-257-0000

대표	053-267-9000	경영지원국	053-267-5000	광고국	053-267-0800	문체부	053-253-0065
부사장	053-254-0500	기획조정실	053-267-0600	사회부	053-253-0060	지방부	053-253-0064
편집국장	053-257-0200	인원실	053-267-0700	정경부	053-253-0061	편집부	053-253-0063

구독료 :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외부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군위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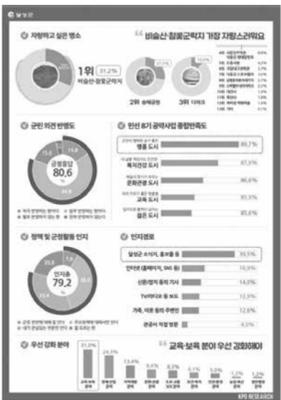
군위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으로 운영위원회의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 사업에 있어역량강화사업은 자생을 위한 운

영위원회의 역량강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견학은 제주의 센터 현장을 방문해 강의 및 질의 응답을 통해 운영함에 있어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주도 내 환경면 웃뜨르빛 센터와 영진동 나비문화센터를 방문했다. 센터내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활용 등을 설명 듣고 시설을 둘러보며 군위군에 적용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에 대해 운영위원회와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박재성 기자

# 달성군 민선8기 최재훈 號 순항... '명품 도시 달성' 청신호

행정수요조사 군민 만족도 87.8% 문화·체육 분야 89.3%로 최고 경제·산업 87.7%, 전 분야 만족



달성군 최재훈 號가 '2024년 달성군 행정수요 조사'에서 순항 중으로 나타났다. 군은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실시한 행정수요 조사에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조사는 주민만족도, 정주시, 생활여건 평가, 그리고 달성군의 미래 발전방향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진행했다. 지난 4월 17일부터 6월 17일까지 60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만 18세 이상 달성군민 1000명을 대상으로 1:1 개별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달성군 추진사업 만족도 및 기대효과와 군정 운영 방향'에 대해 질문한 결과, 각 분야별 종합 만족도는 87.8%, 기대효과는 85.5%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분야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문화·체육 분야가 89.3%로 가장 높았으며 △안전·환경(89.2%) △경제·산업(88.8%) △관광산업(88.2%) △지역

개발(88.2%) △교육·보육(87.7%) △보건·복지(86.9%) △농·축산(85.8%) △일반행정(84.2%)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년도 대비 대부분의 분야에서 만족도가 상승했으며, 분야 간 편차가 크지 않아 균형 잡힌 정책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분야별 기대효과 역시 경제·산업이 87.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전 분야 만족 수준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점은 군민의 89.9%가 달성군 생활에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작년 대비 10.8% 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정주 이유로는 35.8%가 주거환경 및 사업·직장 생활을 꼽았다. 이는 달성군의 생활 인프라와 경제 여건이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한편, 합계출산율 1.03명으로 출생아 1000명 이상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한 달성군이

다양한 보육·교육 정책을 펼친 결과임을 말해준다. 달성군의 자랑스러운 명소로는 ▷비슬산·잠꽃군락지가 31.2%로 1위를 차지했으며 △송해공원(27.5%) △디아크(10.9%) △사문진 주막촌·낙동강 생태탐방로(8.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는 달성군의 자연환경과 문화시설이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지금까지 추진한 사업 중에서는 △대구 제2국가산업단지 유치(23.8%),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하빈 유치(22.7%), △24시간 응급실 개소(13.8%), △권역별 도서관 건립 등 교육시설 확충(11.8%) 순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달성군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92.8%가 긍정적으로 응답해, 지난 조사 대비 8.9%포인트 상승한 결과를 보였다. 군정운영에 대한 만족도도 88.5%로 높게 나

타났으며, 정책 수립 과정에서의 군민 의견 반영도에 대해 80.6%가 긍정적으로 답해 소통 행정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입증했다. 최재훈 군수는 "민선8기 지난 2년에 대한 군민 여러분의 높은 평가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는 증거이다. 하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달성군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개선해 나가겠다. 앞으로도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소통과 혁신을 바탕으로 '젊고 역동적인 달성'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 군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달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여은 기자

## 75년 만의 달아오른 대프리카, 세균성 감염병도 극성

### 세균 증식 활발, 장관감염증 증가

대구시는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철에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들에 손 씻기와 안전한 음식·물 섭취 등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후 변화로 지난 4월 26일부터 대구시 낮 최고기온이 31도에 이르는 등 이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7월부터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됨에 따라 높은 온·습도의 영향으로 세균 증식으로 인한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세균성 장관감염증(11종)은 날씨가 따뜻해진 5월 말부터 발생이 증가하기 시작해, 현재 연속 3주간 환자 수가 200~250명대로 높은 발생을 보이고 있다. 이는 산발적 노로바이러스 발생과 특히 여름철 호발하는 살모넬라균, 캄필로박터균 환자 수의 증가가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살모넬라균은 주로 오염된 육류, 생닭, 달걀 껍데기 등으로 감염될 수 있으며 감염 시 6~72시간까지의 잠복기를 거쳐 설사,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인다.

캄필로박터균의 주요 원인은 조리가 불충분한 닭고기, 돼지고기, 오염된 생우유의 섭취 등이고 감염 후 2~7일(10일) 잠복기 후 증상이 나타나는데 발열, 권태감이 설사 1~2일 전 먼저 나타날 수 있다. 김신우 대구시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이러한 감염병 증상이 나타나면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 주고 음식을 조절해야 한다. 탈수가 심하거나 전해질 불균형이 생기면 수액치료도 고려될 수 있으며 고열, 혈변, 중증 설사 등 증상이 심하면 병원 진료를 통해 항생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관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발생을 막기 위해 올바른 손 씻기와 철저한 식품관리를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대구시는 설사 환자 및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집단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역학조사관·의료인력·검사요원으로 구성된 역학조사반(10개반 192명)을 운영하여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가동, 24시간 업무체계를 유지하며 감염병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조여은 기자



##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 기공식

디아크 문화관 일대 전국 생태관광 명소 조성 시민이 즐거움 느끼는 매력적 공간으로 조성

대구시는 지난 2일 디아크 문화관 일원에서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의 기공식을 개최했다. '디아크 문화관광 활성화 사업'은 금호강 르네상스의 선도사업으로, 금호강 르네상스 마스터플랜 수립으로 사업을 구상하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와 계약 절차를 마치고 그간 본격 착공 준비를 해왔다. 본 사업은 2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2026년 상

반기 준공이 목표이며, 낙동강과 대구 전역을 관통하는 금호강이 합수하면서 지리적·생태적 상징성을 보유한 디아크 일원에 주변 관광자원(달성습지, 대명유수지, 화원관광지)을 연계하고 단절성을 개선해 생태·문화·관광이 어우러진 명품 하천을 조성한다. 랜드마크 관광보행교는 길이는 428m, 폭은 5m이며, 2개의 특화 공간인 아크 베이와 아크 테라스로 구성돼 있다. 아크 베이는 최대 폭 10m를 확장해 15m 공간에서 낙하분수를 내려보고 낙수소리를 들으며 쉴 수 있는 휴게공간과 전망대를 조성할 계획이며, 아크 테라스는 최대 폭 3.5m를 확장해 8.5m 공간에서 달성습지와 낙동강 금호강 합수부를 조망할 수 있도록 캐노피를 설치한 계단식 전망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경시설로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흥민문화광장과 달성습지와 연계한 생태적 공간의 달성갈대원 산책로, 그리고 랜드마크 관광보행교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디아크 풍경의 창을 설치할 예정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달성습지·대명유수지·화원유수지 간 분리돼 있는 관광자원을 통합·연계해 대구를 대표하는 친수형 관광거점 조성을 통한 전국적인 관광수요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흥준표 대구시장은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선도사업인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금호강 전 구간에 걸친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여 대구를 글로벌 내륙수변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대구 상징공간, '2·28자유광장' 표지물 제막식

시대적 가치 갖춘 대구의 상징공간 새로운 트렌드가 담긴 공원 재탄생



대구시는 대구를 대표하는 두류공원 중앙부에 위치한 2·28기념탑 인근 광장을 '2·28자유광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3일 광장 입구에 설치한 2·28자유광장 표지물 제막 행사를 가졌다. 2·28민주운동은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주도해 일어난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화운동으로 마산3·15의거와 4·19혁명을 화신어 뒀으며, 2018년 국가기념일로 제정됐다. 지난해 5월에는 4·19혁명 기록물과 함께 2·28 당시 시위 모습을 담은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만큼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이다. 대구시는 이러한 2·28민주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2·28자유광장'으로 명칭을 정하고, 광장 입구에 표지물을 설치한다. 제막식에는 흥준표 대구시장, 이만규 대구광역시의회 의장, 시의원, (사)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과 시민 100여 명이 참석했다. 2·28자유광장 표지물은 길이 14.5m, 높이 6m의 짙은빛 계열의 화강석으로 장엄하고 무게감을 느낄 수 있으며, 태극기의 건곤간리를 적용해 2·28정신과 한 국적 이미지를 연출했다. 흥준표 대구시장은 "앞으로 2·28자유광장 일대는 2·28기념탑과 함께 자유·민주·정의의 외친 대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알리고, 시민들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는 가장 사랑받는 명소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여은 기자

## 수성구, 지역복지 자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주민복지서비스 안내서 발간



수성구는 복지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복지 자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수성구는 새로 구축한 지역복지 자원 관리시

스템을 기반으로 수성구청 홈페이지에 수성구 복지자원 '메뉴 신실, 주민들이 민·관 복지서비스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복지자원 표준 분류체계에 따라 △경제 △신체적·정신적 건강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9개 분야, 389개 민·관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구청과 보건소 관련 부서뿐만 아니라 지역 내 복지기관도 참여해 주민의 복지 욕구 충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정보를 제공한다. 또 '한눈에 쏙!' 주민복지서비스 안내서'를 1,000부 제작해 많은 주민이 볼 수 있도록 구청과 보건소 민원실 등에 비치하는 한편, 지역의 여러 복지기관에도 배부했다. 조미경 기자

## 동구청, 2024년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지자체 행정서비스 부문 대구 1위 선정

동구청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부문 품질조사에서 대구 5개 구·군에서 1위를 차지했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매년 인구 20만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기본 서비스, 공공성, 친절성, 신뢰성에 대해 50여 개 세부 항목을 조사해 발표하는 지표이다. 특히, 실제 서비스를 직접 경험한 주민들이 평가를 진행해 공정성이 높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 1위 선정으로 자만하지 말고 주민과 소통하는 더욱 친절하고 따뜻한 동구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조미경 기자

경주시, 소상공인 위한 미용아카데미 운영

경주시와 (사)대한미용사회중앙회 경주시지부는 미용아카데미를 연다. 미용아카데미는 오는 11일부터 새달 6일까지 5차례에 걸쳐 열린다.

시는 앞서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신청접수를 받아 수강 정원 100명을 모두 채웠다. 아카데미는 △최신유행컷트 △아로마테라피 △올림머리 등을 주제로 이론 및 실습

교육으로 진행된다. 수강료는 업계 종사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전액 무료다. 교육과 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미용사회 경주시지부로 전화(054-749-4291) 또는 방문 문의하면 된다.



주말 경주에 가면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피크닉 페스타... 옛 경주역서 막을라 국내 인기 인디밴드·거리예술팀 공연 MZ세대 도심 유입 도심경제 활성화

기상 악화로 연기됐던 '피크닉 페스타'가 오는 6.7일 이틀간 경주문화관1918에서 열린다. 피크닉 페스타는 지난달 29일 개최될 예정이었지만, 우천으로 불가피하게 일정이 연기된 바 있다. 행사는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및 MZ 세대를 대상으로 한 소규모 축제다. '경주문화관1918'은 폐역이 된 옛 경주역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꾸민 곳으로 축제 기간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의 오감을 △공연 △공간연출 △먹거리 등 세가지 분야로 만족시킬 예정이다. 공연 분야는 △콘서트 스테이지와 △프린지 스테이지로 나눠 열린다. 이 가운데 △콘서트 스테이지의 라인업은 6

일 PL밴드, 김수영, 하동균 밴드, 7일 김사월, 유다빈 밴드, 로맨틱펀치로 구성된다. 또 △프린지 스테이지는 어린이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연으로, 국내 인기 절정을 누리고 있는 거리예술팀 8팀을 초청해 하루 4회씩 이틀간 8회의 공연이 열린다. 공간연출 분야는 △1918 놀이터로 나눠 이틀간 낮 1시부터 운영한다. 이 가운데 △1918 쉼터는 더운 날씨를 감안해 쿨링 안개존 및 감성 그늘막을 등을 공연 관람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다. 공연장 240m 구간에 안개 분사 노즐을 설치해 관람객의 무더위를 날려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1918 놀이터는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구성, 가족동반 관람객들이 행사장에 머물면서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한다. 먹거리 분야는 총 5대의 푸드트럭(△아이스 크림 △닭강정 △닭꼬치 △연어초밥 △타코야끼)이 운영된다. 경주시는 이번 축제를 통해 가족 단위 관광



객과 MZ세대들의 도심 유입으로 도심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문화관1918 피크닉 페스타를 통해 시민들을 위한 문화소통의

장이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쉼터 같은 공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송호준 경주부시장, 산사태 예방 적극 대응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 건강한 성장 아동권리 증진

경주시는 지역 내 초등학교 대상 '찾아가는 학교폭력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교육은 5월 27~6월 27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초등학교 12곳 63개반 학생 12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청소년상담자원봉사자 가운데 학교폭력 예방교육사 자격을 취득한 13명의 전문 강사를 학교에 파견해 교육을 했다. 교육은 '소중한 너와 나'라는 주제로 학교폭력의 정의, 예방과 대처법, 처벌 등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학생들로 하여금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 만들기'에 대한 다짐을 갖게 했다.



송호준 경주부시장의 첫 공식 일정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토함산 현장 점검을 하고 있는 모습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학교 내외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줄이고 학교생활의 안정화 도모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교육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아동청소년과 054)779-6177로 문의하면 된다.

전세계에 경주를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바크하우스 미 영사는 "2005년 APEC 정상회의의 당시 한국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前대통령도 경주를 찾았던 만큼, 미국과 경주와의 인연은 매우 깊다. 2025 APEC 정상회의의 개최지로 경주가 선정된 것을 축하한다"고 화답했다.

경주를 찾은 놀란 바크하우스 미 영사는 2022년 8월 주부산 미국영사관에 부임한 직후부터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및 제주 지역과 미국 간의 교류 협력 업무를 맡고 있는 인물이다.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 미영사, 경주 방문

놀란 바크하우스 주부산 미국영사관 영사 일행이 경주시를 찾았다. 시는 놀란 바크하우스(Nolan Barkhouse) 영사 일행이 3일 경주시를 찾아 주낙영 시장을 예방. 상호 교류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지난 3년간 전 시민이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해왔다"며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통해

경주 황리단길, 대기업 신입사원 이색연수 장소 각광

국내 굴지 기업 지난해 2천여명 황리단길 연수

경주 황리단길이 기업들의 이색 연수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온 MZ세대 신입사원들을 위한 연수 장소로 황리단길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곳이기 때문이다. 국내 굴지의 한 완성차 기업은 2022년부터 황리단길에서 신입 직원과 경력직 입사자 대상 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 기업은 단체교육의 한계를 넘어 신입사원들의 참여도와 배우는 재미를 높이기 위해 이색 연수를 기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이 기업은 17회차에 걸쳐 직원 2000여 명을 황리단길로 보냈다. 1회차 당 적게는 80여 명에서 많게는 100여 명이 3주회에 한 번 꼴로 황리단길을 찾았다.

올 여름방학은 청소년수련관서

경주시가 '2024 여름학기 특기적성 교육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프로그램은 지역 내 청소년의 창의력 향상 및 자기개발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교육 과정은 △바이올린 △우쿨렐레 △통기

연수 기간 8~10명씩 조를 나눠 황리단길 곳곳을 만나볼 동안 돌며 각자 주어진 미션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이색 연수를 했다. 이색 연수에 참여한 신입사원들의 반응도 뜨거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업의 이색 연수 덕분에 지역경제에도 훈풍이 불고 있다. 이 기업은 직원 연수를 위해 황리단길 식당 4곳, 카페 3곳, 심원빵 가게 2곳, 분식집 1곳과 협약을 맺으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견인했다. 경주시는 이 기업의 이색 연수로 적잖은 경제적 유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색 연수에 힘입어 다른 기업과 기관들의 참여도 잇따르고 있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은 지난해부터 경주에서 신입사원 교육을 진행하면서 팀워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황리단길을 찾고 있다.



황리단길을 찾는 관광객 모습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도 교직원·교수 회의를 황리단길 내 임정한 △항밀 △별채반 △교 통삼밭 등지에서 열면서 전통적인 회의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조직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경주 황리단길은 단순히 식당과 커피숍만 즐비한 소비 공간을 넘어 새로운 트렌드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자리잡았다. 앞으로도 경주시는 황리단길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탐방에 한함)이며, 수강료는 △청소년 1만원 △성인 2만원이다. 신청접수는 오는 22일 오전 10시부터 24일 까지 사흘간 경주공공서비스예약(인터넷)을 통해 선착순 마감된다.

윤용찬 기자/사진 경주시제공

A large graphic advertisement for Daegu's population policy. It features the slogan '행복한 시민 사랑스러운 대구' (Happy citizens, loving Daegu) and '과격하고 행복한 도시 살고 싶은' (Overly and happy city, I want to live in). The graphic is divided into four quadrants: '도전하는 청년' (Challenging youth), '활기찬 노후' (Vibrant old age), '꿈을 키우는 아이' (Growing dreams for children), and '행복한 가정' (Happy family). At the bottom, it says '내게 딱 맞는 인구정책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With the population policy that fits me, we will create a city where citizens are happy.) The Daegu Metropolitan City logo is in the bottom right corner.

영덕 영양  
청송 청도  
울릉 울진

# 하나로 뭉쳐 보다 더 희망찬 영양 건설

23회 영양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 주민화합...



### 박기복 신임회장 취임 축하 쌀 기부

영덕로타리클럽은 제37대 박기복 신임회장의 취임을 맞아 지난 2일 영덕군 청사에서 김광열 영덕군수를 만나 300만 원 상당의 쌀 10kg 100포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탁했다.

박기복 회장은 "로타리클럽의 정성을 잊고 축하해 주신 분들의 의미를 더욱 뜻깊게 사용하기 위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이를 환원하기 위해 쌀을 받아 기부하기로 했다. 언제나 나눔과 봉사가 필요한 곳으로 달려가 지역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청송군 도시재생 주민대학 졸업식

청송군은 최근 진보문화체육센터에서 '청송군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의 졸업식을 가졌다.

이 날 졸업식에는 윤경희 군수를 비롯한 졸업생 가족 및 관계자들이 함께 했다.

윤 군수는 "이번 도시재생주민대학(제4기) 교육을 통해 도시재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앞으로 졸업생들이 청송군의 지역 도시재생 리더로서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김병욱 前 의원 장학금 기탁

김병욱 前 의원(제21대 포항시남구·울릉군)이 (사)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에 장학금 450만 원을 기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 의원의 기탁금은 울릉군교육발전위원회를 통해 형편이 어렵거나 성적 우수한 울릉군 지역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전달된다.

### 울진군, 수산자원 증대 어업인 소득증대 한 몫

울진군은 지난 1일 울진읍 연지리 대나리촌계 마을어장에서 어린 넙치를 방류했다.

방류는 점차 고갈되어가는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어린 넙치 27만 마리를 매입,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화합과 단결로 영양의 미래를 열어갈 전기가 될 것!! -

제23회 영양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행사는 지난 2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오도창 영양군수, 김석현 군의장 및 115개리 이장과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한마음대회는 개회식, 우수이장 표창, 체육대회, 읍면장기자랑 등으로 진행하여 그간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장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각기 다른 읍면에서 주민의 대표이자 마을의 대표자로 수고하는 이장 간의 우애와 화합을 다지고 마을 간 정보를 교류하는 등 화합하는 자리가 됐다.

손상득 이장연합회장은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화합과 단결로 6개 읍면이 하나로 뭉쳐 영양의 밝은 미래를 열어간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곧 내 고장 영양의 발전과 희망이란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이번 한마음대회가 115명의 이장들이 서로 간 화합, 하나로 뭉쳐 보다 더 희망찬 영양을 만들어가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이장들이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더욱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윤동 기자



오도창 영양군수가 지난 2일 영양군민회관에서 열린 영양군 이장연합회 한마음대회에 참석관계자들과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영양군제공>

## 울릉군, 건강권 보장 의료 인프라 확장 최선

울진군, 2024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 질 높은 개인 맞춤형 의료봉사

울릉보건의료원은 김용석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초빙, 진료를 시작했다.

김 전문의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김용석통증의학과의원 원장'을 제주시에서 22년간 운영했다. 김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관절염(무릎·어깨), 만성질환, 두통, 척추질환(디스크), 오십견 등이 전문 진료 분야이다.

고령 인구가 많아 만성 및 관절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많은 울릉군 특성상 적합한 전문 의료 인력 초빙이다.

울릉군과 같은 도서지역인 제주시에서 장기간 의학의 길을 걷은 김용석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는 환자들의 고민에 공감하고 빠른 회복을 도와 울릉군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할 의지도 내보였다.

김영현 울릉군보건의료원장은 "의료서비스 범위를 확대해 군민들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치료 보장 및 관리 등 의료 인프라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 "울릉군 보건의료원은 지역 유일의 공공의료기관으로서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호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건강권 보장 및 의료 인프라 확장에 최선을 다해 '행복한 군민'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윤환 기자

행하고 각종 지역행사나 축제, 연주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블루아라 합창단은 창단된 당해부터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 참가해 3년 연속으로 수상하는 쾌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음악활동을 통해 끼와 재능을 펼치며 지역사회에 비터민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김광열 영덕군수는 "블루아라 합창단 단원들이 우리에게 전하는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가 지역 사회를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재능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조여은 기자

영덕군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블루아라 합창단이 지난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2회 전국발달장애인합창대회에서 장려상을 받았다.

블루아라 합창단은 2022년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창단, 30여 명의 지적·지체성 발달장애인을 통해 창단, 30여 명의 지적·지체성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됐다.

매주 2회 예주문화예술회관에서 정기연습을 진

향도소방서, 긴급구조종합훈련 실시

청도소방서는 최근 청도평생학습행복관에서 대형재난 발생시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긴급구조종합훈련을 했다.

훈련은 군청, 경찰, 보건소, 한전, 대남병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 보여주기식 훈련방식에서 탈피, 無 각본·아나운서·내빈·차량대기선의 실전형 훈련방식으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임무를 명확히 해 재난사고를 조기에 종식시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훈련은 군청, 경찰, 보건소, 한전, 대남병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기존 보여주기식 훈련방식에서 탈피, 無 각본·아나운서·내빈·차량대기선의 실전형 훈련방식으로 기관별 역할분담 및 임무를 명확히 해 재난사고를 조기에 종식시켜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뒀다.

조여은 기자

청송군, 솔리언트래상담 기본교육 인기

건강한 또래 문화 형성  
학교폭력문제 예방도움

청송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달 6월 3~26일까지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진보초 5·6학년 대상으로 청소년폭력예방 솔리언트래상담 기본교육을 운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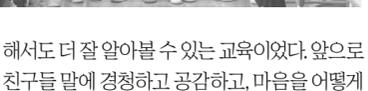
솔리언트래상담은 일정한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또래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움을 주고받는 청소년 모두가 성장하는 공감·의사소통·리더십 함양 프로그램이다.

기본 교육은 또래 상담자의 역할을 친하고 좋은 친구, 대화하는 친구, 도움 주는 친구 세 가지로 설정하고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태도와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교육에 참가한 한 학생은 "친구의 의미에 대해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고, 자신에 대

해서도 더 잘 알아볼 수 있는 교육이었다. 앞으로 친구들 말에 경청하고 공감하고,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도 잘 알게 됐다"라고 말했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또래상담 프로그램이 건강한 또래 문화를 형성, 학교폭력문제 예방에 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윤병문 기자



청송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달 6월 3~26일까지 매주 일주일에 하루씩 진보초 5·6학년 대상으로 청소년폭력예방 솔리언트래상담 기본교육을 운영했다.

상속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공고

피상속인 : 망 신세호(881124-1167811) 사망일 : 2024. 2. 15  
최후주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한정승인 : 신달식 (441012-106681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65번길 5(수진동)  
김삼양 (581127-2167825) 영주시 대학로 130, 105동 808호(가흥동, 가흥주공아파트)  
문미선 (860131-2896710)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상속포기인 : 신달식, 김삼양  
채권신고장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2024년 7월 1일

한정승인  
1. 신달식 (441012-106681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65번길 5(수진동)  
2. 김삼양 (581127-2167825) 영주시 대학로 130, 105동 808호(가흥동, 가흥주공아파트)  
3. 문미선 (860131-2896710)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상속포기인 : 신달식, 김삼양  
채권신고장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2024년 7월 1일

한정승인  
1. 신달식 (441012-106681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65번길 5(수진동)  
2. 김삼양 (581127-2167825) 영주시 대학로 130, 105동 808호(가흥동, 가흥주공아파트)  
3. 문미선 (860131-2896710)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상속포기인 : 신달식, 김삼양  
채권신고장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2024년 7월 1일

한정승인  
1. 신달식 (441012-106681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65번길 5(수진동)  
2. 김삼양 (581127-2167825) 영주시 대학로 130, 105동 808호(가흥동, 가흥주공아파트)  
3. 문미선 (860131-2896710)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상속포기인 : 신달식, 김삼양  
채권신고장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2024년 7월 1일

한정승인  
1. 신달식 (441012-1066812)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165번길 5(수진동)  
2. 김삼양 (581127-2167825) 영주시 대학로 130, 105동 808호(가흥동, 가흥주공아파트)  
3. 문미선 (860131-2896710)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상속포기인 : 신달식, 김삼양  
채권신고장소 : 대구 달성군 구지면 국가산단서로84길 118, 110동 1601호 (대구국가산단 영무예마을)

### 영천 영주 봉화 의성 고령 성주

의성소방서, 제15대 박영규  
의성소방서장 취임



의성소방서는 지난 1일 제 15대 의성소방서장으로 박영규 소방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박영규 서장은 청도 출신으로 청도이서고등학교와 계명대학교를 졸업하고 2003년 소방간부후보생 12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북도 소방본부 청문감찰팀장, 구조구급과장, 영천소방서장 등을 역임했다.

박영규 의성소방서장은 "의성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의성군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재성 기자



### 영주시 전통시장, 변화를 위한 교류의 장 열려

영주시는 지난 2일 영주국민체육센터에서 관내 전통시장 상인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영주시 상인연합회 교류한마당'을 개최했다.

영주시 상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상인들 간의 교류와 정보 공유를 통해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시장 상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준비됐다.

이날 오전 행사에서는 입장식, 개회식, 선서, 체조 등이 진행되었고 오후 행사에서는 상인들 간의 단합과 화합을 위한 명랑운동회, 장기자랑 등 웃음꽃이 피는 대화합의 장이 이어졌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에서 상인들은 물가 상승 등으로 침체된 시장 경기를 우려했던 기분을 잊고 맘껏 웃고 즐겼다.

박남서 영주시장은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지역 상거래 중심 역할과 지역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왔다"라며, "활력 넘치는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상인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다방면의 노력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전성기 기자

### 영천시보건소, 찾아가는 행복병원 운영

영천시보건소는 포항의료원과 함께 3일 영천시가족센터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근로자 등의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행복병원' 무료 이동 진료를 통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2024년 '찾아가는 행복병원'은 의사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4월부터 11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읍·면 지역 또는 복지시설에서 운영되며, 의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진료, 투약, 사후관리 및 보건교육 등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최은하 기자

# 봉화 한·베트남 협력 포럼, K-베트남 벨리 사업 설명

국내 유일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 개발로 우호 증진

박현국 봉화군수는 지난 1일 롯데호텔 서울 본관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관광 활성화 및 문화 협력 포럼'에서 봉화군 역점추진 사업인 K-베트남 벨리 조성에 대해 설명했다.

주한 베트남 국가관광청이 주관한 이번 포럼에는 판민쥬 베트남 총리를 비롯한 베트남 고위급 인사와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및 이부진 한국방문의해위원장, 임종득 국회의원 등 300명이 참석했다.

한국과 베트남 양국간의 관광 교류 증진과 문화 협력에 대한 논의를 위해 개최된 이날 포럼에서 박현국 봉화군수는 두 번째 발표자로 나서 봉화군 소개, 봉화군과 베트남 리왕조의 역사성 설명, 각종 교류 현황,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 설명, 건의 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처음 한국을 방문한 판민쥬 베트남 총리 앞에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K-베트남 벨리 충효공원 내 리태조 동상 설치를 베트남 정부에서 제작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의성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의성군이 3일부터 2024년도 청년기업 융자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의성군이 자체 조성한 청년발전기금 사업의 일환으로 의성군 관내 청년기업에 저금리 융자를 실시해 청년기업의 경영안정, 시설개선 등을 통해 청년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융자지원사업의 규모는 총 20억원이며 연 1%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중소기업은 최대 1억원, 소상공인은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융자지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담보 또는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가 필요하다. 의성군은 관내 청년기업의 신용보증 및 대출 조건 완화를 위하여 지난 6월 KB국민은행 및 경북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융자지원사업 신청대상자는 신청서류 제출일 기준 △의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 중인 △만 19세에서 만 45세 이하의 청년기업으로 공동대표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일일반유휴주점업이나 무도유휴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규정하는 업종의 대표자나 △최최근 5년 이내에 의성군 소상공인 특별보증 이력이 있거나 의성군의 기금융자지원이력이 있는 업체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융자사업의 신청은 3일부터 올해 말까지 상시로 받을 예정으로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올해 사업예산 20억원이 모두 소진되면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융자지원 신청서류는 의성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융자신청자는 △지역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 (<http://untact.koreg.or.kr>)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후 △융자지원신청서 및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해 △KB국민은행의 성지점 청년기업융자지원 서비스 창구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 받아 △의성군청 관광경제능업국 청년정책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부동산을 담보로 융자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KB국민은행 의성지점에 별도 문의해야 한다. 군은 매월 2회 청년발전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융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융자 이후에는 융자금 적정 사용 여부에 대한 현장실사도 실시할 예정이므로 융자금을 신청 외 타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융자를 받은 후 휴·폐업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해야한다. 적발될 경우 환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저금리 융자지원사업을 통해 청년기업들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라며 "의성군은 언제나 청년들의 꿈을 응원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청년정책을 펼쳐가겠다"라고 밝혔다. 박재성 기자



판민쥬 베트남 총리는 이어진 연설 시간에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인 충효당의 충효공원은 좋은 아이디어라며 향후 논의를 통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베트남 벨리 조성사업은 국내 유일한 베트남 리왕조 유적지의 개발을 통해 한-베 양국간의 우호 증진과 이주배경인들의 교류공간 및 관광지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이다.

2018년부터 양 국가 간 우호협력과 다양한 민간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전체 사업비는 국비, 지방비, 민자를 포함해 약 2000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성기 기자

# 민선8기 2주년,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 향해 힘찬 출발

### 이병환 성주군수, "군민 곁으로 더 가까이"

이병환 성주군수는 지난 1일,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해운탕에서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들의 위훈을 추념하는 참배로 민선 8기 후반기를 시작했다.

별도의 기념식 대신 250여 명의 직원이 참석한 직원정례회에서 민선8기 후반기에 중점 추진할 △사통팔달 교통망 구축과, △성주읍 및 초전면과 벽진면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 △온세대플랫폼 조성사업, △이천정비 및 케어팜빌리지 조성사업, △서부권 관광단지 개발사업, △심산테마파크 조성사업 등 군정 주요사업에 대해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례회 후에는,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의 6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함께 노력해준 직원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 커피를 전달하는 "카페데이" 행사도 가졌다.

이날 오전 성주군 노인회를 방문해 노인회의 애로사항과 발전방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소성리 마을회관을 방문해 지역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공동체문화활동에 함께 참여하며 주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촌 돌봄마을 시범단지로 조성될 구삼동연수원의 인근 마을인 금산리 마을을 방문해 케어팜빌리지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며, 주민들의 요청사항에 귀기울였다.

소성리 마을회관과 금산리 마을회관 방문을 시작으로 민선8기 하반기에는 각 읍면 마을회관을 순회 방문하여 주민들과 더욱 밀착하는 소통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민선 7기 4년에 이어, 중단 없는 군민중심 행복성주를 만들기 위해 지난 2년간 노력해왔고, 그 결과 성주군의 지도가 변화하고 있으며, 민선8기 후반기에는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해 주민과 동행하는 새로운 성주, 더 큰 성주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재훈 기자

# 영천시, '철마의 힘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인다'

### 영천시, '철마의 힘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인다'

영천시는 지난 2일 영천시민회관에서 열린 직원 정례회에 최기문 영천시장을 비롯한 영천시 직원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8기 3년 차 영천의 발전 의지를 새롭게 다졌다.

이날 직원정례회에서 민선8기 2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와 짚어보고 향후 시정방향에 대해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례회 마지막에 '힘찬 시정 출발' 퍼포먼스에서는 '새로운 도전, 힘찬 출발!', '철마의 힘으로 사람과 기업이 모인다'는 도시, 영천이 새겨진 현수막과 민선8기 3년 차에 추진할 주요 사업명이 새겨진 피켓 10여 개를 들고 전 직원들이 함께 영천발전 의지를 함차게 외쳤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민선8기 3년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목표하는 과제들을 이뤄나가 영천의 활력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영천시정 발전을 위한 새로운 출발



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최은하 기자

### 영주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 바닥분수 개장

### 오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바닥분수로 더위 날려버려요"

영주시는 오는 9일부터 8월 20일까지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문수면 무섬로 180번길 16) 바닥분수를 개장한다.

바닥면적 89㎡, 총용량 43㎡규모의 바닥분수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50분 가동, 10분 휴식) 운영하며, 휴관일인 매주 월요일과 우천 시에는 가동하지 않는다.

시는 주 1회 저류조 청소 및 2주마다 수질검사

를 시행하고 안전관리 근무자 1명을 배치해 청결과 안전을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다.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동시 수용인원은 최대 20명으로 제한한다. 단체로 이용 시 대기인원이 있으면 한 단체당 최대 1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바닥분수를 이용하고자 하는 어린이집 등 단체(10명 이상)의 경우 반드시 전화로 사전 예약(☎054-639-4862-4)을 해야 한다.

한상숙 문화예술과장은 "무더운 여름을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과 함께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란

### 고령군의회 제9대 하반기 의장단 구성

고령군의회는 제9대 하반기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됐다.

군의회는 지난 1일 제299회 임시회에서 이철호 의원을 의장으로, 유희순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

했다. 이철호 의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다지역구(개진면·우곡면·쌍림면) 의원이다.

유희순 부의장 당선인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비례대표 의원이다.

이철호 후반기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군민의 크나큰 기대와 막중한 책임감으로 두 어깨가 무겁다"며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군민 곁으로 다가

다"며, "방문하는 관광객 모두가 안전하게 안심하고 바닥분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를 빈틈없이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20년 개관한 천지인 전통사상체험관의 주요시설은 천문관, 풍수지리관, 인관 등의 전시체험관과 어린이 체험관, 다목적실, 무인셀프사진관, 무인카페, 웹툰 방탈출테마파크 등이 있다.

상시 운영프로그램으로는 바람개비 만들기, 딱지 접기 등이 있으며, 지난 4월부터 매달 다양한 주제로 어린이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체험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전화(☎054-639-4862-4)로 문의하면 된다. 전성기 기자

가 공감과 상생의 덕목을 실천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반기에 이어 하반기 부의장으로 연임된 유희순 의원은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고령군민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하반기에도 동료의원들과 협력하여 군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배영백 기자

그해 여름  
가슴 속  
적막을 깨는 곳,  
청도



청도군  
CHEONGDO-GUN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0 청도군청 054-370-6114